



커뮤니티 '광주버스킹', 최장백 씨 등 2015년부터 운영
취준생부터 간호사까지 34명 참여... '오픈박스'서 상설 공연도

“광주 버스커 모두 모여라”

‘코로나에도 노래는 멈추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 19 확산으로 공연은 취소되거나 연기되기
일췌였고,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공연계에서
는 온라인 생중계를 활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버스킹’ (busking)만은 예외였다. 버
스킹은 거리에서 자유롭게 공연하는 것을 의미하
는데, 광주 지역 버스킹 커뮤니티이자 플랫폼인
‘광주버스킹’은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지역 곳
곳에서 악기, 작은 마이크, 휴대용 앰프 등을 들고
다니며 거리 곳곳에서 음악으로 관객과 꾸준히 소
통했다.

최장백씨가 2015년 만든 ‘광주버스킹’에는 현
재 버스커 34명이 참여하고 있다. 최 씨를 중심으
로 박성태·박경범 씨가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는
데, 처음 결성 당시에는 참여자가 100명이 넘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19가 덮친 후 대부분이
생계 등 여러가지 이유로 떠났고, 남은 멤버들만
이 무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20대부터 40
대, 대학생부터, 취업준비생, 간호사, 교사, 공무
원, 택배기사 등 직업도 다양하다. 또, 가요는 기
본이고 팝을 비롯해 마술, 피아노·기타·색소폰 연
주 등 선보이는 장르도 다채롭다.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한 최 씨는 “음악에
대한 기대와 열정으로 대학에 입학했는데 다른 사
람들은 아르바이트 하기 바쁘고, 취업준비 하기에
정신이 없었다”며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전공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싸구
려 앰프 스피커를 사서 혼자 길거리에서 노래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
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나 공연장이 따로 필요없는 버스킹의 특성
덕분에 ‘광주버스킹’은 계속될 수 있었다. 버스킹
은 주로 야외에서 펼쳐지는데, 비교적 실내보다
코로나 19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광주버스킹’은 봄·여름·가을에는 주로 야외에
서 공연을 진행했고,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실내
에서 무대를 선보이며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5·18 민주광장, 상무소각장, 유·스퀘어 문화관,
충장22 등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장소부터
loft 28, 홀 등과 같은 개인 카페가 무대가 됐다.
또 광주에 한정하지 않고 담양 메타프로방스, 곡
성 기차마을, 나주 목사고을시장 등 전남지역에서
도 관객과 만났다.

이들은 자체적인 공연 외에도 프린지페스티벌,
충장축제 등 지역 행사를 비롯해 무등종합사회복

지관 행사, 두암동 밤실마을 상설하우스 행사 등
에도 참여했다. 광주시가 주최하는 ‘버스킹 경연
대회’에 출전해 1위를 차지했으며, 이밖에도 제5
회 대학가요제 리턴즈 경연대회 등 다양한 대회에
도 참가하며 실력을 뽐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광주시 북구 양산동에 있는
종합생활용품점인 ‘오픈박스’가 후원을 시작하면
서 매주 주말(토요일 오후 3시, 일요일 오후 4시)
매장 내 2층 공간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도 공연을 멈추지 않을 생각이
다. 최장백 씨는 “‘광주’하면 자연스럽게 ‘버스킹’
이 떠오를 수 있도록 무대를 이어갈 예정이다”며
“또 광주를 넘어 목포, 순천, 전주 등 전남·북 지역
까지 장소를 확장, 더욱 많은 관객들과 만나고 싶
다”고 말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버스킹’의 멤버가 지난해 할로윈데이를 맞아 분장을 하고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공연하는 모습.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시간 ‘오후 두 시’

2월 13일까지 드림미술관

김영태·김은택·윤세영 등 참여

‘색으로 표현한 오후 두 시 풍경’
무등산 자락 드림미술관(관장 김도영)이 2021
년 기획전시로 ‘오후 두 시’전을 오는 2월13일까
지 개최한다.

학예인턴 김희선, 조서희씨가 기획한 이번 전시
제목 ‘오후 2시’는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때를 상징한다. 전시에서
는 이 움직임을 인간의 감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
치는 ‘색’이라는 시각언어를 통해 연출한다.

전시에는 김경란·김영태·김은택·오기리·윤세영
작가를 초대해 회화, 사진, 설치 등 모두 90여점을
선보인다.

사진 작업을 하는 김영태 작가는 ‘시간의 역사’
라 일컫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 장소에 대한 기억
을 재구성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각적 변화
를 느끼게 하는 사색의 지점을 제공한다.

김경란 작가는 설치 작품을 통해 자연의 섭리
속에서 바라본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한다. 누군가



오기리 작 ‘땅의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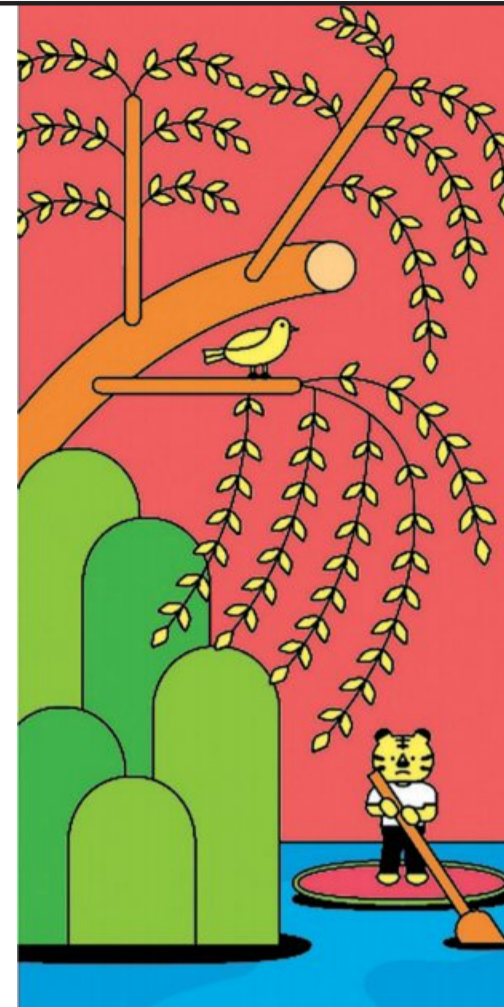
의 슬픔은 누군가의 기쁨이고, 누군가의 끝은 누
군가의 시작이라는각기 다른 상황을 풀어낸 작품
들이다.

오기리 작가는 거칠고 갈라지는 땅의 이미지를
화려한 색채로 묘사한 ‘땅의 에너지’ 시리즈를 선
보인다. 나무 판넬 위에 황토로 작업한 작품들은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 만들어진 ‘단단함’에 대한
찬사이자, 이따금씩 직면하게 되는 불안과 초조이
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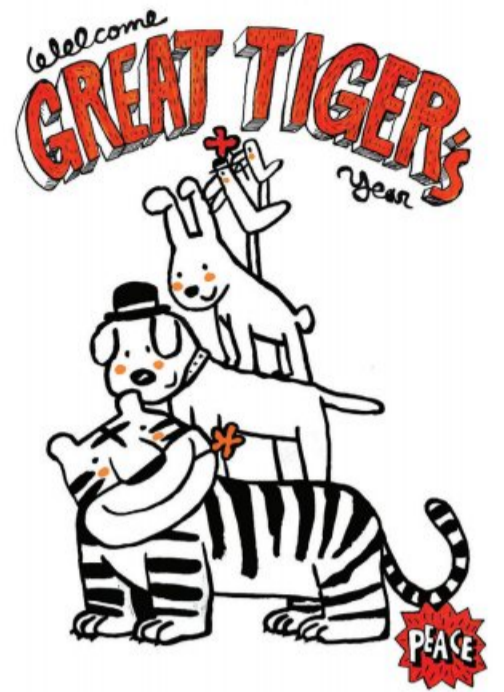
‘빛’이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에 대한 상상을 작
업의 출발로 삼은 김은택 작가는 빛을 개성, 개인
의 기억, 인류 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확대해석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윤세영 작가는 설치와 회화 작품 ‘생성지점’ 시
리즈를 통해 현재와 과거, 미래의 연결을 표현해
내고 있다. 푸른 심연의 바다가 떠오르는 그의 작
품들은 ‘시간이 모여 집약된 에너지’를 보여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윤연우 작 ‘임인년 월매산도 외’



황중환 작 ‘배려와 여유 넘치는 슈퍼타이거’

당신의 새해를 응원하겠 어흥

광주신세계갤러리 2월 20일까지 신년기획전

나폴레옹이 등장하는 유명한 작품을 패러디한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의 주인공 ‘작호’(鵲
虎)는 그래픽 작가 최혁이 까치와 호랑이에서
모티브를 따와 만든 캐릭터다. 전시장 벽면에 라
카 스프레이로 그린 그림은 해학이 넘친다.

유명한 시리얼 광고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황
중환 작가에 의해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다. 전
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대형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임인년의 멋진 출발을 시작한다.

광주신세계갤러리 신년기획전 ‘My Grrreat
2022’가 오는 2월20일까지 관람객을 만난다. 갤
러리가 매년 진행해온 신년기획전은 전통 띠 문화
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작가들의 기발한 해석, 흥
미로운 표현이 어우러져 언제나 즐거운 풍경을 연
출해왔다.

올해는 일러스트, 디자인, 공공미술, 공예, 그
래피티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7명의 작가
를 초대했다. 작가들은 단군신화, 전래동화와 속
담, 격언에 등장하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마스코
트로 사용되는 등 우리와 친숙한 ‘호랑이’를 자신
만의 시각으로 유쾌하게 해석, 색다른 작품을 내
놓았다. 해학과 유머가 담긴 작품들은 보고 있으
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사진 스폿으로도 인기
가 많다.

그래픽 디자이너, 만화가 등으로 활동하는 황중
환 작가의 ‘Super Tiger’ 시리즈는 호랑이가 등
장하는 시리얼 광고에서 영감을 받은 벽화와 일러
스트 작품이다. 부드럽고 힘도 세고 정의로운 호
랑이의 모습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작품으로 따뜻
함이 느껴진다.

공예 디자이너 김지영의 ‘범접할 수 없는 매
력’은 광목 천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작업한 작품
이다.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 까치와 소나무
등이 어우러져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만화가 정승원의 실크스크린 작품 속에 등장하
는 수많은 호랑이들은 때론 능청스럽게, 때론 코
믹한 모습으로 웃음을 전하며, ‘숨은 그림 찾기는
이’하는 듯한 즐거움을 준다. 또 디자이너 최지선
은 ‘호랑이 잇기-산수도’ 등의 작품을 통해 희망
을 찾아가는 모습을 담았다.

미디어아티스트이자 DJ로 활동하는 이조흠은
리드미컬한 음악과 함께 빛나는 태양의 영상 작품
앞에 무엇인가 갈구하는 호랑이의 모습을 담은 설
치 작품을 선보인다.

윤연우는 작자 미상의 민화 병풍 ‘월매산도 외’
를 재해석해 자신만의 휴식을 취하는 호랑이의 모
습을 유쾌하게 표현해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지영 작 ‘범접할 수 없는 매력’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